

교사가 바이브 코딩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장 교사가 직접 경험하고 만든 것들로
풀어보는 이야기

선생님은 왜 AI를 배워야 할까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하나에
큰 시간과 큰 비용



이제부터

한 사람이 하나씩,
하루 만에 완성,
비용은 공짜에 가깝게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한 앱을 찾아 헤맸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손에 넣은 앱조차 내게 딱 맞는 경우는 드물었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맞춰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를 직접 다루는 AI, 이른바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앱이 없다면, 그냥 내가 만들면 됩니다.

“세상에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되는 시대”

나에게 딱 맞는 소프트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맞춰 적응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것, 우리 조직에 딱 맞는 것, 우리 학교에 딱 맞는 것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앱은 우리 학교 교사가 가장 잘 압니다”

개발자도 학교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고 교사도 만들 수 있다면, 누가 만든 게
우리 학교에 가장 딱 맞을까요?
당연히 교사입니다.

사례 01

회원 관리 앱

메모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던 레슬링 체육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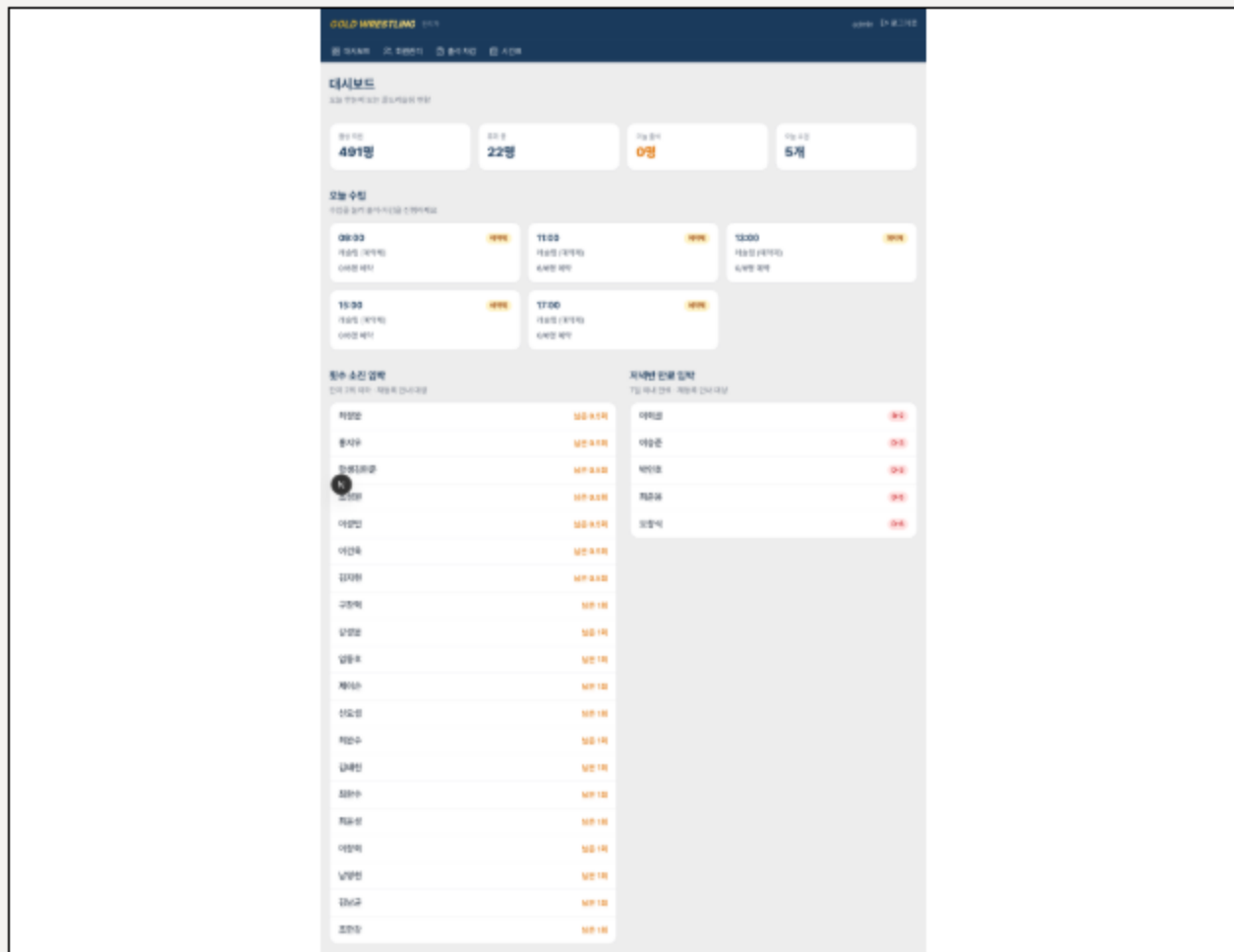
1,000만 원짜리 시스템을, 1,000원에

골드레슬링 체육관의 회원·예약·횃수권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앱.



레슬링 체육관 회원 관리 앱

골드레슬링 체육관 전용 · 회원·예약·횃수권 관리



메모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코치님

제가 다니는 레슬링 체육관의 코치님 두 분께서, 회원 관리 같은 행정 업무를 전부 메모장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운동만 해오셔서 엑셀 쓰는 법조차 모르십니다.

메모장에 회원 이름을 쪽 적고, PT 횡수권과 예약제 수업 횡수권, 단체 수업 횡수권을 적어두고, 회원이 올 때마다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시간 예약은 카카오톡으로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잡힌 시간을 다시 메모장에 옮겨 적습니다. 여기에만 하루 최소 2시간이 듭니다.

참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업무 자동화가 아닙니다.

딱 맞는 앱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쭙봤습니다. "코치님, 이런 회원 관리는 요즘 앱으로 간단히 해요. 진짜 안 어렵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 메모장에 하세요?"

코치님도 방법을 찾아보셨더군요. 회원 중에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 만들 수 있냐고 한 번 물어보셨고, 그전엔 회원 관리 앱들도 찾아보셨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용 앱은 많지만, 레슬링 체육관에 딱 맞는 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약제를 끊어둔 회원이 저녁 단체 수업을 듣고 싶으면, 예약제에서 0.5회만 차감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규칙까지 만족하는 앱은 없었습니다.

개발자가 부른 값은 1,000만 원

관원분들 중 개발자분들이 제시한 금액은, 정말 저렴하게 잡아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AI로 뭔가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생산성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잡아도
1,000만 원”

집에 가는 5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코치님께 규칙과 메모장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제 AI에게 통화하듯 시켜 두면, 체육관에서 집까지 50분 사이에 완성돼 있을 테니까요.

1,000만 원은 필요 없고 앞으로 PT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데 드는 건, 시간으로는 1시간 정도, AI 사용 비용(토큰)으로는 1,000원 남짓입니다.

“1,000만 원 vs
1,000원”

사례 02

복과원

학원에 가야만 얻던 시험 대비 문제와 실전
연습경험을 학교가 제공할 수 있게

학원 없이도, 우리 학교 기출로 실전 연습

경기북과학고 학생과 교사만 들어오는 시험 대비
플랫폼. 학생들이 직접 올린 문제로 우리 학교
양식의 모의고사까지.



bukhwakwon.vercel.app ➔



북곽원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푸는, 경기북과학고 전용 시험 대비

750개

등록된 문제

382회

생성된 모의고사

116명

참여 학생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큰 이유, 자료

제가 재직하는 곳은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학구열이 대단하고, 그만큼 학원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큰 이유 하나가 바로 자료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 전반의 공감대는 비공개입니다. 입시에 예민한 학교라는 고유 특성이 이러한 상황을 만듭니다.

학원에는 우리 학교 기출이 쌓여 있습니다

기출을 구하러 학생들은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어떻게 기출이 있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와 문제를 기억으로 복원합니다. 한 문제를 세 명이 나눠 맡는 식입니다.

논술형이라 시험지를 이미 다 걷어 갔는데도, 학원에 모여 교차 검증으로 문제를 되살리고 강사가 풀이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 기출이 학원 구글 드라이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아닌 학생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생깁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생깁니다”

함께 쌓고, 우리 학교 양식으로 뽑는다

과목별로 학생이 직접 만든 문제나 교과서 문제,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를 살짝 변형한 문제를 올립니다.

그렇게 쌓인 문제로, 우리 학교 시험지와 비슷한 양식의 시험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와 문항 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 딱 맞는 예상 문제를 풀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자료와 실전 연습, 그리고 관리입니다. 그 격차를 줄이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본인 학교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작 비용과 시간은 개발자에게 맡길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없는 개발자는 결코 떠올릴 수 없는 아이디어, 교육 현장의
당사자만이 아는 문제의식으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딱 하나,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아이디어로 말한 것뿐입니다.
요즘 저는 AI와 협업할 때, 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완벽하게
결과물로 나올지 늘 고민하고 개선하며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저는 오로지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에만 집중하고,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은 줄여 폭발적인 생산성으로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은 딱 하나, 문제의식을 아이디어로 말한 것”

사례 03

도름스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교사 커뮤니티

교사들이 만든 앱이 모이는 곳

AI를 활용한 교육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의
커뮤니티. 교사들이 직접 만든 앱을 공유하거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dorms.school ➔



도름스

살짝 돌아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만드는 교무수첩

62개

선생님이 만든 앱

7,2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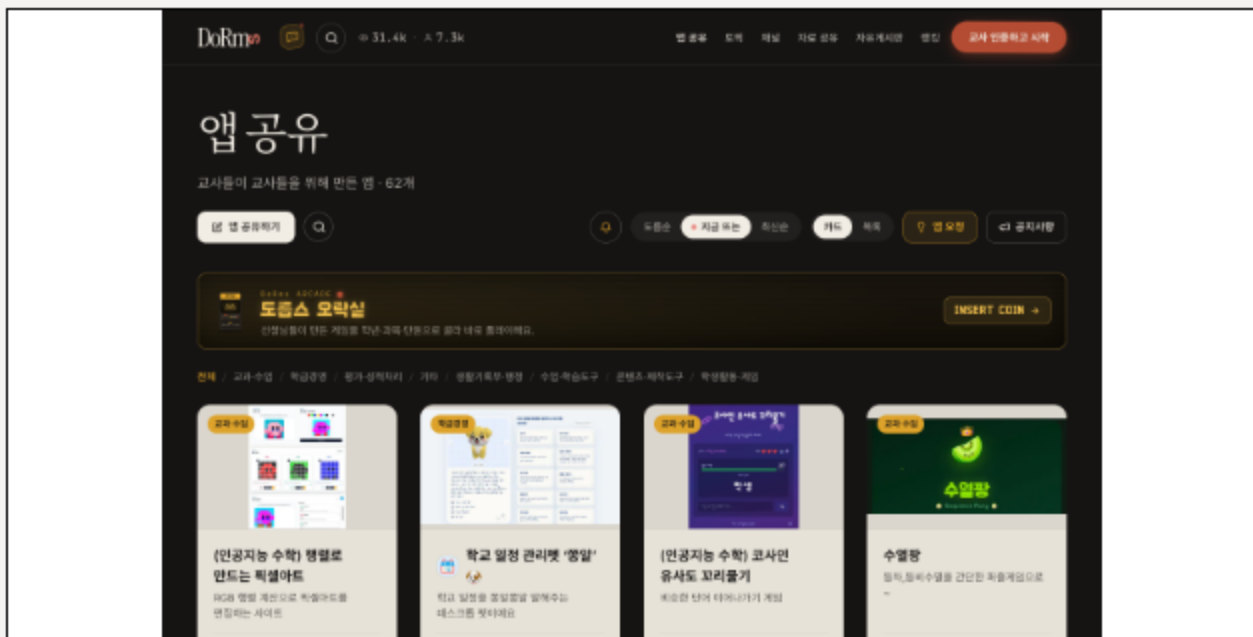
다녀간 교사

31,399

누적 조회



외 56개



이 커뮤니티를 만든 세 가지 이유

01 현장의 문제는 현장 교사가 가장 잘 압니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건 교육지원청 주무관도,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닙니다. 2026년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디테일이 있고, 그 문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02 저 하나로는 일부만, 함께면 전부

저도 그저 평범한 교사라 모든 문제를 알지도, 모두 완벽한 아이디어로 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사가 저마다의 문제의식과 AI의 힘으로 자유롭게 계속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한데 모였을 때 비로소 교육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03 먼 미래에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힘

그건 사람들의 연결과 커뮤니티입니다. AI가 멋진 커뮤니티를 만들어 낼 수는 있어도, 거기에 사람을 모으는 건 그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의 비전과 가치관으로 부터 형성된 신뢰입니다.

사례 04

살필름

사람들을 모은 출발점, 올바른 생기부 AI란?

관찰을 생기부 문장으로, AI가 바꿔 줍니다

교사가 오타 잔뜩 내며 눈앞의 학생 성장을 막적으면, AI가 생기부 문장으로 바꿔 주는 앱. 도름스 커뮤니티가 시작된 출발점.

참고 전국 선생님들이 인스타그램 @dorm_edu로 모이기 시작한 계기입니다.



salpeem.my ▶



살핌

관찰을 생기부 문장으로, 학기말엔 맥락을 지켜 압축

30,513

살핌 AI 호출수

5,405

다운로드

1,273

활성화 키



교사는 성장을, AI는 형식을

01 교사가 어려워하는 건 관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학생을 보고, 그 성장을 칭찬하고 교육합니다. 정작 어려운 건 맞춤법을 맞추고, 매뉴얼을 지키고, 글자 수를 채우는 형식입니다. 저는 그게 생기부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 AI를 어디에 쓸지 가르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AI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서 AI가 할 일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03 교사는 성장을, AI는 형식을

교사가 눈앞의 성장을 오타 잔뜩 내며 적으면, AI가 생기부 문장으로 바꿔 줍니다. 학기말엔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사용자와 함께 대화하며 학생 생기부를 완성합니다. 이 문제의식에 모든 학교 선생님이 공감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례 05

정알

MBTI P가 100인 교사가 만든 잔소리 비서

까먹을 수 없게, 쫑알쫑알 알려주는 펫

다양한 성격의 쫑알 패밀리가 PC 화면을
돌아다니며 학교 일정을 챙겨주는 데스크톱 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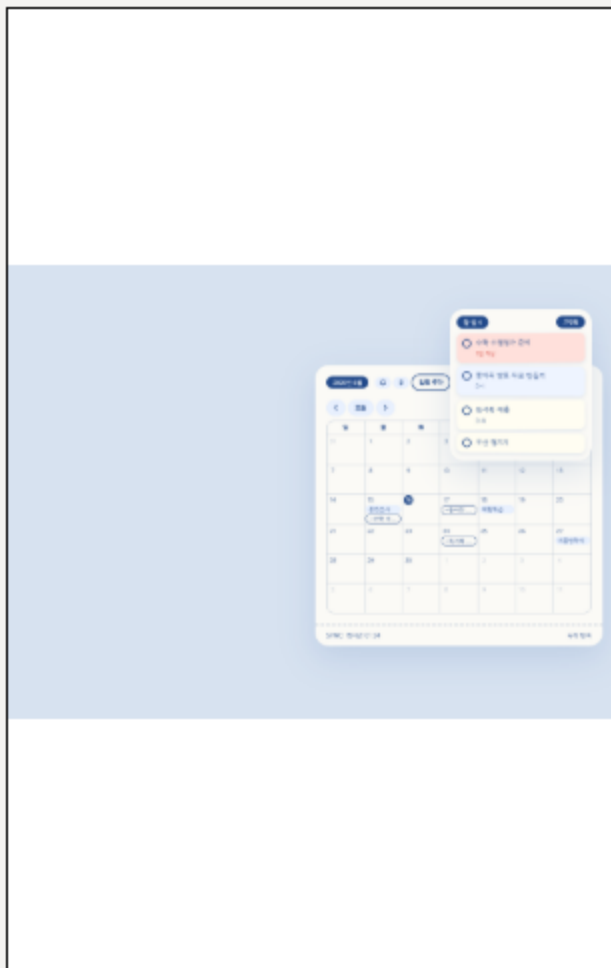


jjongal.dorms.school ➔



쫑알

화면을 돌아다니며 학교 일정을 잔소리해 주는 데스크톱 펫



저에게 딱 맞는 일정 앱은 없었습니다

저는 MBTI를 하면 P가 100이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숫자 100입니다. 그런데 학교엔 챙길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손해면 괜찮은데,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일정 관리 앱도 여럿 써봤지만 저한테는 안 맞았습니다. 애초에 달력을 안 켜고, 켜서 등록해도 다시 안 보고, 봐도 깜빡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종알입니다.

달력을 굳이 안 봐도, 이 펫에게 일정을 말해 두면 알아서 저장하고 계속 종알종알 알려 줍니다. 학사 일정도, 오늘 급식도, 시간표도 챙겨서 도저히 까먹을 수 없게 해줍니다. 학생도 종알을 깔면, 제가 학생에게 공지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직접 만듭니다

북곽원



bukgyakwon.vercel.app ↗

경기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맞춤 시험
대비 플랫폼

도름스



dorms.school ↗

AI와 함께하는 교육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의 교사
커뮤니티

살핌



salpeem.my ↗

관찰을 생기부 문장으로 바꾸는 AI

종알



jjongal.dorms.school ↗

학교 일정을 챙겨주는 데스크톱 팻

북깍스토어



bukstore-vert.vercel.app ↗

경기북과학고 교사와 학생이 만든 앱 모음

도름스 오락실



dorms.school ↗

교사가 만든 게임을 골라 플레이

앵그리매스



angrymath.vercel.app ↗

함수 식이 포탄의 궤적이 되는 수학 게임

소개 링크

선생님들도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싶으시거나, 이미 배워서 만든 앱을 공유하며 이 집단지성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모든 링크 모음

dorms.school ➤



인스타그램 @dorm_edu

[instagram.com](https://www.instagram.com/dorm_edu) ➤



도름 오픈 카톡방

open.kakao.com ➤